

식당·카페 자정까지, 동성로 가게마다 터져나갔다

‘영업시간 확대’ 후 대구 첫 주말

5,6명씩 찾은 손님들 인산인해
술집 앞에 몰려 흡연 ‘노마스크’

대학가·공원도 젊은이들 북적
자정 넘어가자 야외서 술판도

23일 오후 11시쯤 대구 중구 종로 골목의 한 주점. 내부는 물론 야외테이블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5, 6명 이상 단체로 온 손님들도 눈에 띄었다. 자정이 되자 술집 주인이 “나가가 한다”고 큰소리로 안내했지만, 몇몇 테이블은 떠나지 않아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종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더 연장된 뒤 첫 주말, 대구 곳곳은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로 붐볐다. 대구 도심에 비해서 대학가와 공원 등지가 젊은이들로 북적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마저 나온다.

대구의 식당과 카페는 이날 18일부터 영업시간이 자정으로 확대됐다. 이날 동성로 주점 골목은 입구부터 술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과 담배를 피우느라 밖에 나온 사람들, 지나가는 사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2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야시장이 ‘불토’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북적하고 있다. 안성환 기자 asw0727@imaeil.com



식당 등 영업 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확대된 이후 첫 주말인 23일 대구 도심과 대학가, 공원 등이 밤 늦도록 들쭉였다.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동성로 술집골목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윤정호 기자

람들이 섞여 발디딤 틈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후 7시부터 100석이 넘는 규모의 대형 주점들은 젊은이 등으로 가득 찼다. 한 주점에서 1m도 안 되는 간격으로 테이블이 붙어 있었고,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노마스크’인 채로 대화를 나눴다.

손님 이모(24) 씨는 “토요일 시내가 이렇게까지 북적거리는 모습이 낯설 정도”라며 “이전에는 영업시간이 일찍 끝나는 탓에 아예 처음부터 야외에서 술을 마셨는데, 자정까지 영업시간이 늘자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시내를 찾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11시쯤 한 좁은 무인사진관은 대기줄이 바깥까지 이어질 정도로

붐볐다.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잊은 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울 앞에 모여 화장을 고치는 등 단장에 여념이 없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탓에 손 소독제와 체온측정기가 있었지만, 무시하고 지나치기 일쑤였다.

이날 경북대 복문 역시 대학생 등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한 주점은 오후 6시쯤부터 만석을 이뤘다. 젊은 층에서도 백신

접종완료율이 늘어 5, 6명씩 술집을 찾은 일행도 눈에 띄었다. 대학가 역시 술집 앞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한 주점 점원 A씨는 “대학이 중간고사 기간인데, 일부 과목의 경우 지난 주부터 시험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나마 시험 기간이어서 덜 붐비는 편인 것 같다”며 “오늘은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한산한 편인데, 다음 주면 북새통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자정이 넘어가자 야외로 향하는 사람도 있었다. 24일 오전 1시쯤 쌀쌀해진 날씨에도 수성못 둔치에는 밀착해 앉아 버스킹 공연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버스킹 공연은 오전 1시를 넘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

윤정호 기자 hoony@imaeil.com

대면 소비·관광 다시 늘리려는 정부

외식·숙박·영화·스포츠 관람...
소비쿠폰 오프라인서 확대 재개

그간 중단됐던 정부의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도 재개된다.

정부는 외식·숙박·프로스포츠 관람·영화·체육 등 소비쿠폰의 재개를 바탕

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됐었던 대면 소비영역을 다시 살린다는 방침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먼저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중단한 후 추석 직전 외식·공연 쿠폰만 허용했던 방침에서 전면 재가동으로 바꿀 계획이다.

2만원 이상 음식을 카드로 세 번 결제하면 네 번째 때 1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외식쿠폰 예산은 현재 200억원가량 남아있어 2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체육 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이다. 300억원가량의 예산이 있어 1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영화관람권 1매당 6천원을 지급하는

영화쿠폰은 100억원 예산이 있어 약 160만명이 쓸 수 있다. 배구·농구 등 관람시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30억원 예산으로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관광 및 숙박 쿠폰, 여행주간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다시 시행된다. 관광쿠폰은 공모에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을 선결제하면 30%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며, 관련 예산은 90억원가량 남아 있다. 숙박쿠폰은 정해진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숙박비 7만원 초과시 4만원, 7만원 이하시 3만원을 할인해준다. 400억원가량의 예산이 있어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하면서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판매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단위 행사와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주문 줄어 걱정인 배달전문업체들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되면서
식당으로 발길 돌리자 매출 타격

삼겹살 배달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A(44) 씨는 요즘 가게 매출표를 보며 한숨만 짓는다.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확대와 영업시간 연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완화된 지난 18일부터 매출이 평소보다 반토막으로 폭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말 점심이면 밥먹을 시간도 없이 주문이 밀렸지만 요즘은 주문이 도통 들어오지 않는다.

‘위드 코로나’ 소식에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쾌재를 부르는 가운데 일부 배달 전문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거리로 나오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배달 수요가 잠잠하는 모습을 보이자 업종 변경 등을 고민하는 모습도 보인다.

직장인을 상대로 한 도시락 배달 전문업체 등은 타격이 상당하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동안 막혔던 사회적모임이 가능해지면서 점심부터 도시락 배달 대신 식당 방문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이 줄줄이 생기면서다. 최근 들어 배달비까지 올라서 부담이 만만찮아지는 직장인들은 물론 가정에서도 배달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다.

도시락 배달 업체 사장 B(50) 씨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이 뜸 것이라고 생각해서 배달 전문 업체 장사를 시작했다. 직장인들 점심 수요도 넘쳐 나름 장사도 잘됐다”며 “하지만 지난주부터 점심 도시락 배달 주문이 확 줄었다. 주문을 자주 하는 한 단골 회사는 장부까지 만들어놓았는데 지난주에 ‘주문을 그만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배달업에서 발을 빼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24일 자영업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 사정으로 배달 전문점 매매한다’, ‘권리

금 인하여 배달 전문점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배달 업체가 정리되는 것을 반기는 소비자들도 있다. 배달 수요가 음식이나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비대면 영업’을 병행하는 것도 저울질하고 있다.

회 배달 업체 사장 C(38) 씨는 “지난주부터 배달 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배달업이 아예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수산물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가을 전어, 방어철을 맞아 회 배달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주위에선 매출 하락에 대비해 비대면 홀 영업을 함께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담스러운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영업 방식을 바꾸는 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판촉물은 역시! 그린기프트

1588-8480
www.greengift.kr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 소평물

그린기프트

DGB대구은행 DGB

DGB iM뱅크

스크린 골프대회

I'M KOREAN, IM BANK

◆ 대회기간 : 2021.10.01~2021.10.31

총 상금 3천만원의 혜택과 iM뱅크 굿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DGB iM뱅크 스크린골프대회 x GOLFZON

당첨자 발표 : 골프존 별도 공지(www.golfzon.com)

- ◆ 장소 : 전국 골프존 매장(비전플러스, 투비전, 투비전플러스)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골퍼 누구나 (단, 골프존 회원가입 필수 및 GTOUR프로 등 프로골퍼는 모든 시상에서 제외)
- ◆ 방법 : '대회모드'로 입장 -> DGB iM뱅크 스크린골프대회 참여
- ◆ 대회상금 : (백화점 상품권 지급)
 - 1위~10위 : 300만원~20만원(10명)
 - 홀인원 : 50만원(최초, 최종 각 1명)
 - 롱기스트, 니어니스트 : 30만원(각1명)
 - 최다 라운드 : 20만원(3명)
 - iM뱅크존 랭킹 : 5만원 상당 iM뱅크 굿즈(선착순 100명)
 - 참가자 추첨 : 5만원(100명)

DGB iM뱅크 스크린 골프대회 & 특판 안녕독도야 예,적금 출시이벤트 바로가기

유의사항

1. 전국 골프존 비전플러스, 투비전, 투비전플러스 보유 매장에서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2. 대회 참가지역은 골프존 전체 회원으로 하되, GTOUR프로 등 각종 국내외 프로골프협회 회원 자격이 있거나 아마추어 국가 대표 및 상비군으로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3.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시상품 지급 등은 골프존에서 진행 하며 관련 사항은 골프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골프존 홈페이지(www.golfzon.com) 또는 골프존 고객센터 (1577-433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권자인성비행 제21-386호(2021.09.30~2021.12.31)